

“결자해지” vs “발생지 해결”...광주시-나주시 ‘SRF 공방’

광주시 “매립장 수명 30년 단축, 900억대 금전 손실”

나주시 “광주쓰레기는 광주서...손실 보전 수용 못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나주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손실보전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와 나주시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나주시는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인 반면 광주시는 “발전소 건립을 나주시에서 허가한 만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남도와 나주시가 혁신도시 조성 당시 조각장이나 매립장 대신 SRF발전소를 혁신도시 냉난방 공급 대체 시설로 건립키로 하고 2009년 3월 전남 6개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력 합의를 체결한 뒤 2014년 5월 건축허가까지 승인했음에도, 2700억원짜리 발전소가 완공된 이후에 운영을 반대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시는 “SRF 발전소 가동을 위한 최소 연료량이 1일 300t인데, 사업 초기 전남권 SRF가

150t에 불과해 해외수입까지 고려됐으나 환경부가 ‘국내 연료 사용’을 권고하자 난방공사 측이 부족량을 메꾸기 위해 2013년 9월 광주시 투자 공모에 참여했고, 이듬해 5월 나주시는 발전소 건축을 허가했다”며 “발전소 가동 논란은 나주시의 행정절차 승인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주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면, 다른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광주SRF는 나주가 아닌 제3의 장소에 공급됐을 것”이라며 “합법적 계약에 따라 운용키로 한 광주 양과동 SRF 시설이 결과적으로 미가동돼 매립장 수명은 당초 2068년에서 2038년으로 단축되고 947억원이 투입된 SRF시설은 무용지물이 되면서 금전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어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는 운영 주체인 난방공사와 허가권자인 나주시가 결정할 사안이며, 광주는 발전소 가동 여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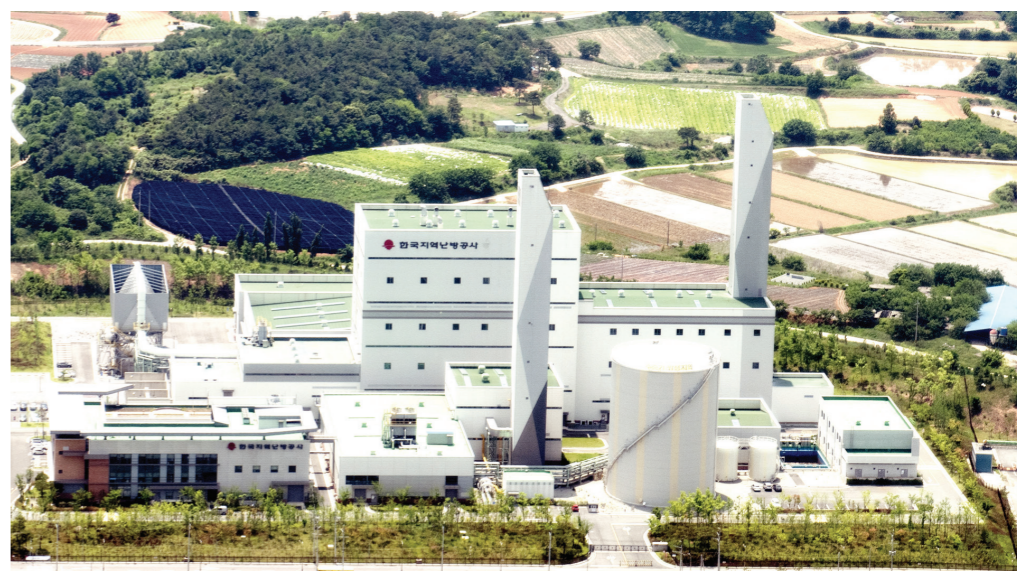
조기에 결정되길 희망한다”며 “광주시의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계약관계에 따라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 이같은 입장은 광주산(産) 쓰레기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나주시 입장에 대한 공개 반박으로 풀이된다.

나주시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을 결정하게 될 주민수용성조사의 전제조건인 손실보전 범위와 민·관협력 거버넌스 부속합의 기간 연장 합의에 대한 입장차로, 힘있게 이어온 거버넌스 합의정신과 성과가 한 순간에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다”며 “손실보전 범위에 광주SRF를 생산하는 청정빛고을(淸淨빛고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난방공사 측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주 SRF발전소는 전남 나주·목포·순천에서 생산한 SRF만 사용키로 한 2009년 3월 업무협력 합의를 근거로 한 판단이다.

나주시는 또 “광주권 생활쓰레기 자원화시설인 청정빛고을(淸淨빛고을) 손실 문제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난방공사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결과물로서, 주요 주주인 광주시와 난방공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민·



전남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손실보전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SRF로 인한 나주시민의 고통을 생각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손실보전 협상 촉진을 위해서라도 광주쓰레기는 광주시가 관리 구역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나주SRF 손실보전 협의는 난방공사가 SRF 시설과 부속시설 매몰처리 비용으로 9000억원을 제시하면서 논의와 협의가 난관에 부딪힌 상태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으로 진행된 협상 촉진을 위해서라도 광주쓰레기는 광주시가 관리 구역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동취재본부

“학교가 그리웠어요” 등교 확대 앞둔 교육일선 ‘활기’

거리 두기 완화로 등교수업 확대 첫날, 설렘 속 긴장감 교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12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초등학생들이 자리를 뜬 채 앉아있다.

“이제부터는 매일 학교에 와도 되네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등교수업 확대가 시작된 12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모 초등학교.

등굣길에 나선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저마다 들뜬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신모(10)양은 “주로 집에만 머무는 것이 지루하고 답답했다. 앞으로 매일 등교할 수 있다니 벌써부터 설렌다”고 말했다.

이모(9)군은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형, 누나를 곧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 좋다”고 했다.

일부 학생들은 친구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려다 교사의 제지를 받았다.

학교 건물로 들어선 학생들은 열화상 카메라 앞에 서서 체온 측정을 했다.

강모(55) 보건교사는 “2단계 거리 두기 장

기화로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다. 활기찬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활기찬 등굣길에 비해 교실 안 분위기는 차분했다. 교실에는 20명 가량의 학생이 서로 거리를 둔 채 앉아 있었다.

대화도 거의 없사피 했다. 수업이 시작된 뒤에도 선생님의 말만 이어졌다.

한 담임교사는 “감염 위험을 막고 교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권유했다.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을 가려는 학생만 이동할 수 있다”며 “학생들은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기존 2단계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이날은 전교생의 3분의1에 해당하는 3·5학년 학생만 등교했다.

다만 1단계 거리 두기 완화에 맞춰, 오는 15일부터는 전면 등교를 시행한다.

학교장은 “교직원 회의를 통해 전면 등교를 결정했다. 대면 수업을 대체할 수단을 찾

지 못해 고민이 깊었는데 등교수업이 정상화된다니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광주 남구 주월동 모 어린이집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등록 원생 104명 중 80여 명이 이날 등원을 마쳤다.

원아들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제 사용한 뒤 교실로 향했다.

교실에는 오랜만에 아이들 웃음으로 가득 찼다. 원생들은 수업 시작과 동시에 1m 간격의 좌석에 앉았다.

맞벌이 학부모들은 등원 정상화를 대체로 환영했다. 학부모 최모(38·여)씨는 “아직 불안하긴 하지만, 확진자가 줄고 있어 안심하고 아이를 등원시켰다. 육아 고민을 한시름 놓게 됐다”라고 밝혔다.

우리를 표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학부모 김모(37·여)씨는 “코로나19로 등원이 꺼려져 지난 학기에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았다”며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지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김



전복



대파



올금

농수산물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